

IMF 지배구조 재편 전망과 한국에의 시사점

오 용 협 국제거시금융실 거시팀 부연구위원 (yho@kiep.go.kr, Tel: 3460-1022)

이 준 희 국제거시금융실 금융팀 연구원 (junhui@kiep.go.kr, Tel: 3460-1187)

주요 내용

- 2005년 9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IMF와 세계은행의 연례총회에서는 한국, 중국, 멕시코, 터키 등 4개국에 대한 IMF 지분(쿼터) 특별 증액이 1단계 지배구조 개편안으로 통과되고, IMF 쿼터공식의 개선, 저소득국의 투표권 확대, 이사회의 규모와 구성 및 총채 선출 방식 개선 등 2단계 개혁과제를 모든 회원국의 합의 아래 2008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데 합의함.
- 이는 1990년대 이후 국제경제의 여건 변화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배구조개선 요구가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및 신흥시장국이 IMF내 의사결정에서의 참여권 확대를 주내용으로 하는 브래튼우즈 체제하의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이라는 점에서 세계은행을 비롯한 다른 국제기구에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1단계 특별증액 결정으로 한국의 의결권 지분은 0.764%(출자지분 24억 2,770만SDR)에서 1.346%(43억 5,040만SDR)로 4개국 중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분 순위도 현재 28위에서 19위로 상승하였음. 이로써 한국의 IMF내 투표권에 대한 확보 및 협의 및 협상을 통해 이사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그러나 한국뿐 아니라 현재 많은 IMF 회원국의 경제력과 쿼터수준이 괴리되어 있어 새로운 쿼터공식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임. 특히 한국이 속해 있는 IMF 투표권 그룹 내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로 인해 호주 등 동 그룹 내 다른 회원국과의 마찰도 우려되고 있음.
- 한국에 대한 쿼터 증액은 국가적인 위상이 높아진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향후 국제무대에서 한국 또는 한국인의 위상 강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큼. 따라서 향후 IMF 지배구조 재편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지에 걸맞는 발언권을 획득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향후 보다 광범위하게 진행될 지배구조의 재편 작업에서 한국과 직접적으로 이해가 상충되는 국가와의 마찰을 줄이고 한국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이고 전략적인 외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1. 서론

- 지난 9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IMF와 세계은행의 연례총회에서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멕시코, 터키 등 4개국이 IMF 지분(쿼터)을 늘리는 안이 통과됨.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결성된 브레튼우즈 시스템에서 창설된 두 개의 대표적인 경제 분야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현 세계은행¹⁾)내의 지배구조가 구조적으로 개도국 및 신흥시장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을 보여주는 것임.
-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서 향후 IMF내 의사결정과정에서 한국의 참여권이 훨씬 높아질 것임. 이번 IMF의 결정은 향후 세계은행을 비롯하여 다른 국제기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1990년대 이후 신흥시장국 경제의 급부상, 전세계적인 민주화, 유럽연합의 통합 진전 등과 같은 국제적인 경제환경의 대폭적인 변화, 거대한 민간자본의 흐름에 따른 IMF 자본의 중요성 감소 추세 외에도, G-7으로 대표되는 주요선진국 그룹이 세계의 주요 경제현안에서 주도적인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현재의 글로벌지배구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²⁾
- IMF는 이와 관련하여 24개 주요 이사국 재무장관으로 구성된 IMF 정책결정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³⁾에서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고 IMF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IMF 지배구조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러한 IMF내 변화의 움직임은 2006년 상반기 IMF가 발표한 중기전략 실행을 위한 보고서에서 지배구조 개선(Governance Reform)이 우선개혁분야(priority) 중 하나로 채택되는 것으로 나타남.

1) 세계은행(World Bank)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을 뜻함. 그러나 실제 세계은행은 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를 모두 포함하는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을 의미함.

2) 1990년대 말 IMF와 세계은행이 정책 권고 및 자금 지원시 차입국에 대하여 “바람직한 지배구조(Good Governance)”¹⁾를 강조하고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를 통해 “지배구조에 대한 지침서”를 채택한 이후 개발도상국과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는 IMF의 지배구조가 과연 지배구조의 일반원칙인 “바람직한 지배구조(Good Governance)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IMF 및 세계은행에 대하여 지배구조의 개선요구를 본격화하여 왔음. “바람직한 지배구조(Good Governance)”란 조직의 부패를 최소화하고 의사결정 및 사회약자의 의견까지 수용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의미함. 예를 들어 투명하고(transparent), 공정하며(equal), 효율적이고(efficient) 민주적 참여(democratic participation)가 이루어지는 조직의 결정구조를 갖는 지배구조임.

3) 1999년 9월 설립되어 국제통화제도의 관리와 감독, 국제유동성 변동 추이, IMF협정문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 총회(Board of Governors)에 보고함.

- 이번 4개국의 IMF 쿼터 증대를 시작으로 향후 2년 내에 IMF 회원국 184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쿼터의 재조정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의 준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룹은 G-20⁴⁾로서 IMF를 비롯한 브레튼우즈 기구(Bretton Woods Institutions: BWIs)의 지배구조 개편과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부여받고 있음.
- 본고에서는 향후 IMF 지배구조 개편 일정을 살펴보고 IMF 지배구조의 주요 쟁점별 개선 논의, 특히 쿼터(Quota) 배분과 지배구조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한국의 쿼터 증액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함.

2. IMF 지배구조 개편 일정 및 의의

- 쿼터(Quota)는 IMF에 대한 회원국의 출자지분을 의미하며 IMF는 각 가맹국의 경제력 등에 비례하여 그 규모를 결정하고 배분하고 있음. 기업과 같이 출자지분인 쿼터가 기구내의 의사결정권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쿼터의 조정은 곧 지배구조의 조정을 의미함.
- IMF는 5년마다 쿼터 정책 전반을 점검하여 쿼터 증액 여부를 결정(General Review of Quotas)하는데, 증액 결정시 쿼터 배분은 실제쿼터와 계산쿼터(calculated quota)가 종합적으로 고려됨. IMF는 계산쿼터를 산출하기 위해 5가지의 공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참고치를 제시하는 선에서 활용되어 왔으며 실제 배분되는 쿼터인 실제쿼터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많았음.
- 쿼터는 회원국의 출자한도, 자금인출한도, 투표권 산정기준, SDR 일반 분배시 배분 규모 결정기준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쿼터의 변화가 지배구조와의 관계에서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이유는 각 회원국의 투표권 배분⁵⁾에 대한 영향력 때문임.
- 이미 지난 9월 싱가포르 연례 총회에서 4개국에 대한 쿼터 특별 증액이 결정되어 지배구조 개편의 1단계는 완료되었으며, 2단계 개혁과제는 모든 회원국의 합의 아래 2008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데 합의함.

4) G-7 국가(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외에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한국, 터키, 유럽연합대표(유럽연합의사회 또는 유럽중앙은행)임.

5) 투표권은 기본표(Basic Vote)와 비례표로 구성됨. 기본표는 모든 가맹국에 250표씩 균등하게 배분되고, 비례표는 각국의 납입 쿼터 10만SDR당 1표씩 배분되고 있음.

표 1. IMF의 단계별 개혁과제

		구체적 과제	추진 일정
1단계 개혁과제 (완료)	IMF 쿼터 특별 증액 (ad hoc increase)	- 특별증액 대상 4대 국가 선정 - 특별 증액 규모 결정	2006년 9월 싱가포르 총회 합의
2단계 개혁과제	IMF의 근본적인 개혁	- IMF 쿼터 공식 개선 - 저소득국의 투표권 확대 - 이사회의 규모와 구성 - 총재 선출방식 개선	2008년까지 향후 2년내 추진

가. 완료된 1단계 쿼터 특별증액의 내용

- 실제쿼터와 계산쿼터간의 괴리도가 크고 GDP, 외환보유액 등 계산쿼터를 구성하는 어느 변수에 비추어 보아도 쿼터가 부족한 한국, 중국, 멕시코, 터키 등 4개국의 쿼터를 증액하는 조치로서 현행 쿼터공식에 의거한 계산쿼터와 실제쿼터 사이에 괴리도가 큰 국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GDP, 외환보유액, 경제의 개방도, 경상수입의 변동성 네 가지 경제변수에서 모두 과부족으로 판명되는 국가를 기준으로 선출하였음. 한국의 경우 조치 이전의 실제쿼터 0.764(a)와 계산쿼터 2.532(b)간의 괴리도(b/a)는 3.31의 수준임.
- 다음 [표 2]는 상기 4개 특별증액 국가들의 쿼터 변화를 보여줌.

표 2. 4개국 특별 증액 증가율 변화

(단위: %)

	한국	중국	멕시코	터키
증액 이전 쿼터	0.764	2.980	1.210	0.451
현재의 쿼터	1,346	3,719	1,449	0,548
증가율	76	25	18	22

- 동 조치 이후 2006년 10월 현재 IMF 총 쿼터(Quota)는 2164.9억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이고, 한국의 경우 29.2억SDR로 전체의 1.35%의 수준임.
- 실제로 4개국의 쿼터 특별증액에 대한 브라질, 인도, 아르헨티나, 이집트 등 개도권 리더 그룹의 강한 반발이 있었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 중남미권 경제의 리더로서 멕시코보다 쿼터가 낮아진 데 대한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인도, 이집트의 경우도 신흥개발도상국으로서 지역경제의 리더이면서 괴리도가 큰 국가이기 때문임.

- 이들은 현행 쿼터 공식의 개선이 이루어진 후 동시에 전체적인 회원국들의 쿼터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도국 4개의 국가들에 대한 특별 쿼터 증액으로 이들 국가의 발언권 및 결정참여의 기회 등 상대적인 이권 감소를 우려함.
- 4개 신흥 시장국의 의결권 지분(쿼터)을 특별증액하기로 결정한 것을 IMF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진전으로 보는데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동안의 IMF 의결권 지분이 각국의 경제력대비 수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다는 184개 회원국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결과로 IMF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됨.

나. 한국 쿼터(Quota) 증액의 의의

- 이번 1단계 특별증액 결정에 따라 한국의 의결권 지분이 0.764%(출자지분 24억 2,770만 SDR)에서 1.346%(43억 5,040만 SDR)로 4개국 중 가장 크게 증가하였음. 한국의 경우 1955년 IMF 가입 당시 0.14%에 불과했던 지분이 이번 특별증액 결정 후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고, 지분 순위도 종전의 28위에서 19위로 크게 상승함.
- 1차 쿼터 특별 증액 결정으로 한국은 위기발생시 IMF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이 72억 달러에서 135억 달러로 약 두 배 정도가 증대됨.
- IMF는 일반 주식회사와 같이 출자자본금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는데, 경제력 등을 기준으로 한 IMF의 의결권 산출 공식에서 도출하면 한국의 지분은 2.508%임. 이번 특별증액 결정으로 인한 1.346% 수준의 한국 쿼터 규모는 경제력 대비 적정수준의 53.7% 수준 정도로 추정되고 추가로 납입하는 19억 정도의 달러 비용은 한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한국의 추가적인 쿼터 증대의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어느 정도 관철시킬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한국의 경제력 상승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참여 요구는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임. 참여 수준에 걸맞는 권한의 확보가 중요할 것이며 IMF 지분이 늘어남에 따라 IMF 투표권 그룹 내 다른 국가와의 협의 및 협상을 통해 이사국의 입지를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됨.

다. 향후 2년간 IMF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쟁점별 논의

- 2단계 개혁안 추진 이면에는 IMF 지배구조가 미국의 리더십과 유럽연합(EU)국가의 영향력

이 브레튼우즈체제하의 구조로 답습되고 있다는 비판과 개도국의 위상 증대를 반영해야 한다는 현실성이 함께 자리잡고 있음. 특히 아시아 신흥시장국 및 여러 개도국의 경제력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들 국가에는 쿼터가 너무 적게 배분되어 있고 유럽연합(EU)에는 통화통합 이후에 과다하게 쿼터가 배분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현행 쿼터 구조가 회원국들의 경제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미국은 과도한 유럽의 이사국 배정 및 유럽 출신 중심의 총재 선출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하여 유럽연합(EU)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저개발국가에서는 저개발국의 투표권이 경제논리에 의해 저하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
- 따라서 2008년까지 추진해야 되는 2단계 개혁과제는 다양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IMF의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향후 도입하여야 하는 새로운 IMF 쿼터 공식, 저소득국의 투표권 확대, 이사회의 규모와 구성, 총재 선출방식 개선 등에 대한 쟁점별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IMF 쿼터 공식 개선

- 현재 증액된 4개국 이외의 많은 IMF 회원국의 경우, 경제력과 그들의 쿼터수준이 괴리되어 있으며, 새로운 쿼터공식을 회원국의 합의하에 도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임. 따라서 향후 많은 IMF 회원국이 그들의 경제규모에 맞추어 IMF 의결권 산출 공식을 변경하자는 논의를 할 것임.
- 따라서 새로운 쿼터산정 공식은 단순하고 투명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고려변수는 GDP, 외환보유액, 경제의 개방도, 경상수입의 변동성을 중심으로 하나 변화하는 세계경제 및 금융질서에 부합하는 새로운 변수를 찾아내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함. GDP가 회원국별 경제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대표변수이므로 가중치가 더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특히 G-20 그룹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표 3]은 현행 쿼터산출 공식에 의한 계산쿼터와 실제 국가에 할당된 쿼터 비교를 통해 계산된 괴리도를 보여줌. 1차적으로 쿼터 특별 증액 4개의 대상국 이외 다수의 국가들의 계산쿼터와 실제쿼터의 차이가 100이상인 수준이며 이는 쿼터 공식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냄.

표 3. 주요국의 현행쿼터와 계산쿼터의 비교(괴리도순)

국가*	실제쿼터(A)	계산쿼터(B)	괴리도(B/A)
영국	5,025	5,222	104
캐나다	2,980	3,128	105
이탈리아	3,301	3,473	105
스웨덴	1,121	1,239	111
노르웨이	0,782	0,878	112
독일	6,087	7,016	115
그리스	0,385	0,460	119
일본	6,229	7,593	122
필리핀	0,412	0,508	123
포르투갈	0,406	0,532	131
오스트리아	0,876	1,153	132
이스라엘	0,434	0,584	135
덴마크	0,769	1,089	142
스페인	1,427	2,207	159
멕시코	1,210	1,951	161
터키	0,451	0,749	166
중국	2,980	5,244	176
태국	0,506	0,916	181
말레이시아	0,696	1,412	202
한국	0,764	2,532	331
아일랜드	0,392	1,692	431
싱가포르	0,404	1,939	480

주: * 괴리도 100 이상 국가

자료: 재정경제부

- 현행 IMF 쿼터는 회원국들의 GDP, 외환보유액, 경상수지거래에 따른 지급 및 수입규모, 경상수입의 변동성 등을 포함한 다섯 가지 공식을 이용하여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산출됨. 따라서 향후 IMF 이사회에서 채택될 쿼터 산출공식은 보다 단순명료하고 경제규모를 적절히 반영해야 하며, 현재 GDP, 경제개방정도, 자본유입의 변동성, 외환보유고 등 네 개 변수를 중심으로 쿼터를 결정하는 안이 호응을 얻고 있음.
- 다음 [표 4]에서 기존공식으로 계산한 쿼터와 상기 4개 변수를 이용한 새로운 쿼터공식으로 계산한 쿼터, 실제쿼터를 비교하여 전체 IMF 회원국들의 총 쿼터중 배분된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의 쿼터 비중이 감소하고 아시아 지역의 쿼터 비중이 증가함.

표 4. 현재 실제쿼터 및 계산쿼터 배분 비교

(단위: %)

	실제쿼터	계산쿼터 (4개 변수)	계산쿼터 (기존공식)
선진국	61.6	67.6	68.3
주요 선진국 (미국포함)	46.0	47.9	48.8
미국	17.4	17.2	17.8
개도국	30.9	27.7	27.0
아프리카	5.5	2.3	2.3
아시아	10.3	15.8	14.9
중동, 말타, 터키	7.6	4.5	4.6
남미(Western Hemisphere)	7.5	5.1	5.2
체제전환국	7.5	4.7	4.7
총	100.0	100.0	100.0

자료: 재정경제부

- 새로운 쿼터공식은 기존공식의 불균등 쿼터배분의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는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기존 쿼터 비중이 감소하고 개도국 중에서도 쿼터증액 수혜를 받지 못함으로써 그들이 느끼는 상대적 이권감소 및 불평등으로 인한 반발이 있어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새로운 공식적인 쿼터공식은 향후 2년 내에 결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변화가 예상됨.

2) 저소득국의 투표권 확대

- 아프리카와 같은 저소득국 지역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자금 지원 등 IMF의 역할이 계속 증대됨에 따라 저소득국에 대한 투표권 및 대표권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 특히 현재 총 24개의 상임이사국 의석 중 아프리카에 2개의 의석만 할당된 것에 대해 비판이 대두되고 있음.
- 지난 60년간 IMF의 쿼터 규모는 약 37배 증가하여 모든 국가에 250표씩 일정하게 배분되는 기본표의 상대적 비중이 IMF 전체 쿼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3%에서 2.1%로 감소하였음.
- 저개발국의 경우 상임이사국 수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투표권 중 쿼터와는 상관없이 결정되는 기본표(각주 5 참조)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총 투표권의 2%를 약간 상회하고 있는 기본표의 비중 증대가 요구되며, 이는 IMF 협정문의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회원국간의 상당한 논의가 예상됨.

3) 이사회의 규모와 구성

- IMF 상임이사회(Executive Board)는 IMF의 운영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총회(Board of Governors)⁶⁾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조직으로서 총 24개국으로 구성됨. 쿼터비중이 상위 5개국인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에서 각각 지명하는 상무이사 5명과 이들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소속되어 있는 각 19개의 투표권 그룹⁷⁾에서 각각 1명씩을 선출한 19명의 상무이사로 구성됨.
- 유럽의 이사회 의석을 감축하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과 이에 대한 유럽의 입장 대립이 존재하고 있고, 이에 대해 IMF는 이사회의 규모와 구성에 대한 개혁 논의는 다른 과제나 이슈보다 많은 시간을 갖고(slower track than the other elements)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미국은 총 24개 이사회 의석 중 유럽이 8개 의석을 차지하여 총 의석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경제력에 비해 과다배분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미국과의 경제규모에 비례하여 균등하고 공평한 적정 배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IMF의 조건부 다수결(Qualified Majority, 특별 다수결) 제도 또한 선진국 위주의 지배구조로 평가되는데 이는 주요 사안에 대해 85%의 찬성을 획득해야 하는 조항임. 조건부 다수결을 필요로 하는 사안은 처음 2개에서 현재 53개 사안으로 급증하였는데, 미국의 총 투표권이 약 17%으로 85%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주제의 경우 미국 1개 국가의 거부만으로도 부결될 수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됨.

4) 총재 선출방식 개선

- 유럽 출신이 계속 총재로 선출되는 현행 방식에 대한 미국의 개선요구가 증대되고, 선출시보다 투명한 절차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데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향후 투명성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6) 협정문의 개정, 신규 가맹국의 가입승인 및 회원국 간의 쿼터조정 등을 처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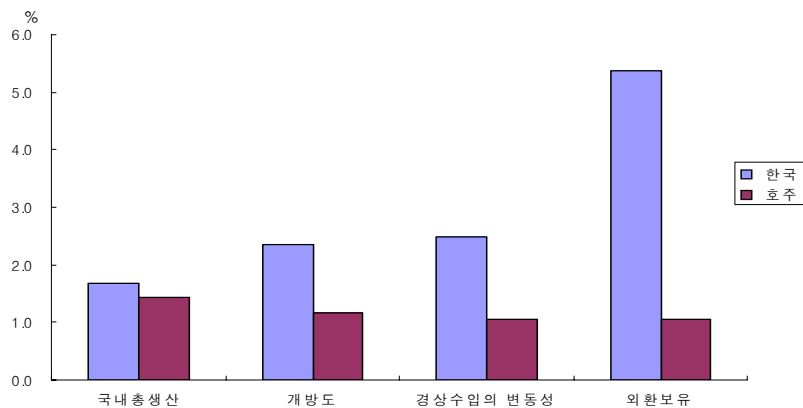
7) 쿼터비중 상위 5개국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을 19개 그룹으로 묶어 2006년 11월 기준 총 2,205,491 투표권을 각 구성국 쿼터비중에 따라 배분하며, 각 그룹에서는 비공식적인 쌍무 및 그룹 내 다자 협상을 통해 상무이사를 대표할 국가 및 임기 등을 협상하여 결정함. 따라서 쿼터, 투표권, IMF 의사결정에서의 권한 등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예민한 부분이 있는 구조임.

- 주요 선진국 중에서 미국은 세계은행 총재를 임명하고, 유럽은 IMF 총재를 임명한다는 묵시적인 양해가 존재하는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모든 국가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총재 선출방식이 필요함.

5) 향후 2년간 한국의 전략적 입장

- IMF 상임이사국 24개국 중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을 제외한 19개 이사국은 IMF의 나머지 회원국을 19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에서 한 개 국씩 대표하게 됨. 한국이 속해 있는 투표권 그룹은 호주, 키리바시(Kiribati), 한국, 마셜군도(Marshall Islands), 미크로네시아(Micronesia), 몽골, 뉴질랜드, 팔라우, 파푸뉴기니, 필리핀, 사모아, 세이셸, 솔로몬군도, 바누아투 등 총 1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2006년 11월 현재 동 그룹의 전체 투표권은 85,360으로 1단계 쿼터중액결정 후 한국은 29,523(34.6%), 호주 32,614(38.2 %)의 투표권을 보유하여 동 그룹의 다른 국가보다 훨씬 투표권이 많은 국가임.
- 한국은 이번의 쿼터 특별중액 결정으로 같은 투표권 그룹의 호주와의 쿼터 차이를 줄일 수 있게 되었으나, IMF 이사국의 지위는 호주가 현재 8년 중 4년인 반면 한국은 8년 중 2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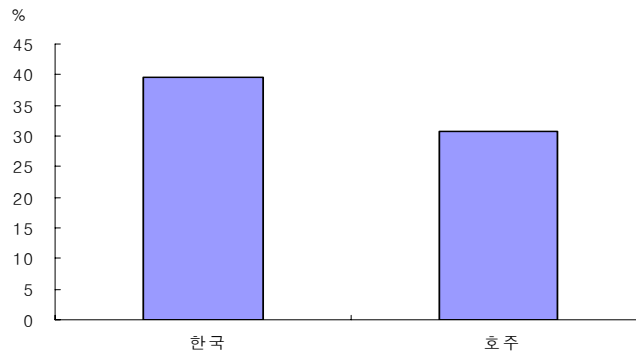
그림 1. 한국과 호주 쿼터 산출 지표 비교



- 주: 1. 국내총생산(GDP), 개방도(Openness), 외환보유(Reserve), 경상수입의 변동성(Variability)은 IMF 총 184개 회원국들의 전체 대비 비중(%)로 나타냄.
 2. 개방도(Openness)는 재수출(re-export), 국제은행금리(international banking interest), 비통화금(non-monetary gold) 등의 변수를 조정하여 경상수지의 총 평균으로 산출한 변수임. 경상수입의 변동성(Variability)은 경상수지(current receipt)와 순 자본유입(net capital flows)의 변동추이를 측정된 변수임.

자료: Finance and Statistics Departments-IMF (2006). "Quotas-Updated Calculations" (www. IMF.org)

그림 2. 한국과 호주 외국인 주식비중 비교(2004)



자료: 안남기(2006), 「국가별 외국인 주식비중 점검」, 국제금융센터.

- 상기 그림은 새로운 쿼터 공식에 포함될 주요 변수를 통해 한국과 호주를 비교한 것임. 한국은 국내총생산, 개방도, 경상수입의 변동성, 외환보유 등 핵심 변수에서 모두 호주보다 앞설 뿐 아니라 새로운 변수로 논의되고 있는 금융시장 개방도 측면에서도 주식시장의 외국인 주식비중을 볼 때 한국이 호주보다 높은 수준임.
- 따라서 2008년까지 한국의 쿼터는 상향 조정될 여력이 충분하나 이는 곧 다른 국가의 쿼터 비중 축소와 한국에 대한 이사회 참여기회의 확대로 인해 같은 투표권 그룹 내 다른 국가의 기회가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양한 외교적인 협상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임. 특히 호주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필리핀, 뉴질랜드 등 동 투표권 그룹 내 다른 국가들과도 협조관계 구축을 통해 한국의 IMF 내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발언권을 늘리는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결론

- 1990년대 들어 국제경제의 여건 변화에 따른 IMF 지배구조의 개선 요구가 전세계적으로 거세어짐에 따라 2006년 9월 제13차 IMF 연례총회에서 IMF 지배구조 개선 2단계 과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 특히 이미 결정된 1단계 과제인 한국·중국·터키·멕시코 4개국에 대한 특별 증액으로 한국은 IMF내 투표권 확대 및 의사결정에서의 발언권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입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됨.
- 한국은 쿼터 증액으로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향후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향후 2년 동안의 제2단계 IMF 지배구조 개선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우리나라의 입지에 맞는 발언권의 획득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도 경주해야 할 필요가 높음. 특히

우리나라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국가와의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점진적인 외교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IMF의 지배구조 재편과정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치 변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향후 다른 국제기구 및 한국인의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을 전반적으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큰 경제적·비경제적 파급효과를 지니는 변화임. 국제무대에서 변방에 있었던 한국이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시적으로 사안별로 충분한 준비와 점검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됨.